

 질병관리청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21. 1. 20. / (총 2 매)			
배 포 일				
코로나19 치료제·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	총괄팀장	유 주 현	전 화	044-202-2790
	담 당 자	이 유 빈		044-202-2797
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도입팀	과 장	신 혜 경		043-719-6810
	담 당 자	조 우 미		043-719-6811
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	과 장	김 희 성		043-719-5061
	담 당 자	김 지 현		043-719-5063

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

-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,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도입 계약 (기술 라이선스인)을 추진하고 있다. 기술 도입 계약이 완료되면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.
 - * ▲노바백스↔SK바이오사이언스 간 기술 도입 계약 등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 추가 생산, ▲SK바이오사이언스↔정부 간 계약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추가 생산 백신을 정부가 선 구매(약 2천만 명분), 국내 공급
-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,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어 왔던 **합성항원 방식***의 백신이다. 정부가 구매한 mRNA·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외에 합성항원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, 다양한 플랫폼이 확보되어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*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, 다수 백신(자궁경부암·B형간염·인플루엔자 등)에 적용된 기술
-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(2~8℃)조건으로 보관·유통이 용이하며, 국내 생산에 따라 원액 생산·보관이 가능하여 유효기간이 1~3년으로 예상된다.
 - 따라서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인 타 백신에 비하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접종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.
- 또한,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이 완료되면,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이전 생산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